

2024  
봄호

vol.159

# 엔젤스 헤이븐

엔젤스헤이븐은 모든 아동과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목차

인사말  
대표님 인사말  
3

현장이야기  
용산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  
12

해피빈  
우간다  
지붕 없는 유치원  
18

장애인 주거권  
장애인의  
주거권 알아보기  
4

현장이야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  
14

엔젤스헤이븐 뉴스  
엔젤스헤이븐의  
따뜻한 이야기  
20

장애인 주거권  
탈시설화에 대하여  
6

현장이야기  
동네밥집에서  
밥 먹고 가세요~  
15

장애인 주거권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  
9

봉사활동  
포근한 봄엔  
씨드볼을 던지자!  
16

2024년 봄호(계간 통권159호)

등록번호 서울라08331 등록일 1997년 12월 9일 발행소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엔젤스헤이븐 후원홍보실 02-357-1701 [www.angelshaven.or.kr](http://www.angelshaven.or.kr)

발행일 2024년 3월 22일 발행인 조준호 편집인 엔젤스헤이븐 후원홍보실

디자인 더디앤씨 [www.thednc.co.kr](http://www.thednc.co.kr)

엔젤스헤이븐 소식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www.angelshaven.or.kr](http://www.angelshaven.or.kr))

또는 전화(02-353-937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봄이 왔습니다.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 오늘이 어제보다 좋기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원자님과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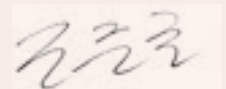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법인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를 서울에서 유일하게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의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극단의 돌봄과 보호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자기 집 외에 갈 곳은 한강과 긴급돌봄센터 밖에 없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 법인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인의 돌봄과 교육, 치료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자립준비청년센터를 위탁 받았습니다. 240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성장을 돕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문제는 엔젤스헤이븐이 설립 때부터 해결해 온 일입니다. 전쟁 이후 '고아원'이 생기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 제대로 독립하지 못한 원생들을 '연장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죠. 엔젤스헤이븐이 운영하는 은평천사원은 이미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자립지원금을 지원했고, 24세까지 책임지고 30세까지 지원하는 현재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10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원의 독립청년들은 자립'준비'청년이 아니라 '독립'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면서 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만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회의 청년들, 다시 말해서 고립은둔청년들을 위한 지원 솔루션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엔젤스헤이븐이 걸어온 65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적인 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활동이 세상을 비추고 희망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후원자님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 조준호



## 장애인의 주거권 알아보기



현대국가는 국가의 의무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규약이나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보면 주거권은 사회권과 자유권을 담고 있는 인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방해하는 요소를 가진 주체를 '주거약자'라고 하는데, 주거약자 중에서 장애인은 돌봄과 자기결정권의 문제,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장애인 권리와 주거권

UN의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에서는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

과 시설 입소 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장애인의 주거와 관련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주거에 관한 모든 장애인은 건강상태나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차별대우도 받아서는 안된다. 장애인이 ‘불가피하게 특수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그곳의 환경과 생활조건은 가능한 그와 연령이 똑같은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누리는 생활조건과 유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설을 장애인 주거에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국가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시설 거주나 수용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거주를 기본적인 장애인 주거의 권리와 복지로 향상시켜왔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서구의

지난한 논의가 장애인 권리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입니다. CRPD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위하여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동산 중개인, 임대인이 주거약자의 권리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정주택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내법상에서는 일반 국민임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거에 있어 차별로 인한 권리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은 미비합니다.

### 주거약자로서 장애인의 주거권

주거약자로서 장애인은 먼저 차별의 문제를 겪습니다. 「주거 기본법」에서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서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거비가 부담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보호가 단순히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는 법과 제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됩니



## 탈시설화에 대하여



### 장애인 돌봄과 자기결정권의 문제

대한민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옹호보다 시설을 통한 보호가 우선이 되어 기본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권리보다는 돌봄 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족 돌봄 감당불가능의 문제'를 시설 이용을 통해서 해결해왔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시설 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장애인 권리의식의 강화와 장애인복지의 발전 속에서 시설을 통한 장애인 돌봄 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탈시설'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장애인 인권에서 핵심과제가 되었습니다.

당사자 중심 장애인운동의 발전속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3대 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을 핵심과제로 설정하

고,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과제인 탈시설 로드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한 상태 속에서 탈시설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중증의 장애인 돌봄과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방향성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시설에 문제가 있는가?

시설 자체가 구조적인 악은 아닙니다. 시설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시설장의 책임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관리와 통제가 합리화되는 것이지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과거에는 입소와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생애주기 전체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위임해야 했습니다.

거주시설의 속성이 자신의 권리보다 시설의 권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영구적'이고, 그 이유가 '장애' 때문

이라면,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입소는 당사자 장애인의 선택보다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행정적인 행위를 수반하며, 입소한 장애인의 삶을 시설장이 책임지는 구조로 삶이 구성됩니다. 이에 비해 주거, 즉 집에서 산다는 것은 입주의 개념으로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입주는 당사자 본인(장애인)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입소와 입주 그 관계가 권력관계인 가 계약관계인가가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 탈시설 논쟁

정부는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이란 말 그대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을 퇴소시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돌봄문제는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돌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책임지기 어려울 때에는 시설 입소라는 절차를 거쳐 장애인 돌봄을 장애인거주시설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서비스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일상생활이나 지역사회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한계가 있고, 자립생활 운동의 영향으

로 거주시설 장애인도 탈시설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향상에 대하여 이 주장이 힘을 얻으며 2021년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자 거주시설에 자녀를 둔 부모단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시설 정책에 찬성과 반대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탈시설이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직 제도적 정비와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시설은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설에서의 퇴소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탈시설 로드맵 고찰

탈시설 로드맵은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하고, 탈시설 초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집중사례관리 지원 및 일시적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의 장애 유형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된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개인별 욕구와 선택에 따라 주거유지 지원,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권리옹호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주시설의 경우 신규 개소를 금지하고,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의 변환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시설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 총 24,48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주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98.3%이고, 지적 및 자폐성 등 발달장애가 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6,038명(28.5%)이고, 이 가운데 탈시설 욕구가 있는 경우는 2,021명(33.5%)에 불과하고, 59.2%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4,481명 중 탈시설 욕구를 표현한 장애인은 2,021명으로 10%도 안되게 조사된 것입니다. 탈시설 욕구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 거주 전체 장애인, 그중에서도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대상이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탈시설보다는 보다 정밀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이 요구됩니다.

한 눈에 보는 탈시설 로드맵 전수 조사

거주시설 장애인 **24,481명**

중증장애인 **98.3%**

지적 및 자폐성 등 발달장애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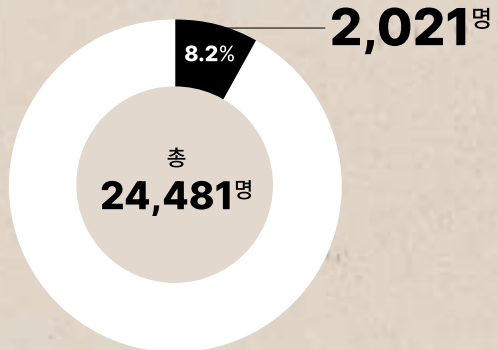
대면조사 시 본인 응답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6,038명**

탈시설 욕구가 있는 경우 **33.5%**

탈시설 욕구가 없는 경우 **59.2%**

탈시설 욕구를 표현한 장애인





# 엔젤스헤이븐의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

장애인의 주거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장애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가족의 돌봄문제 해결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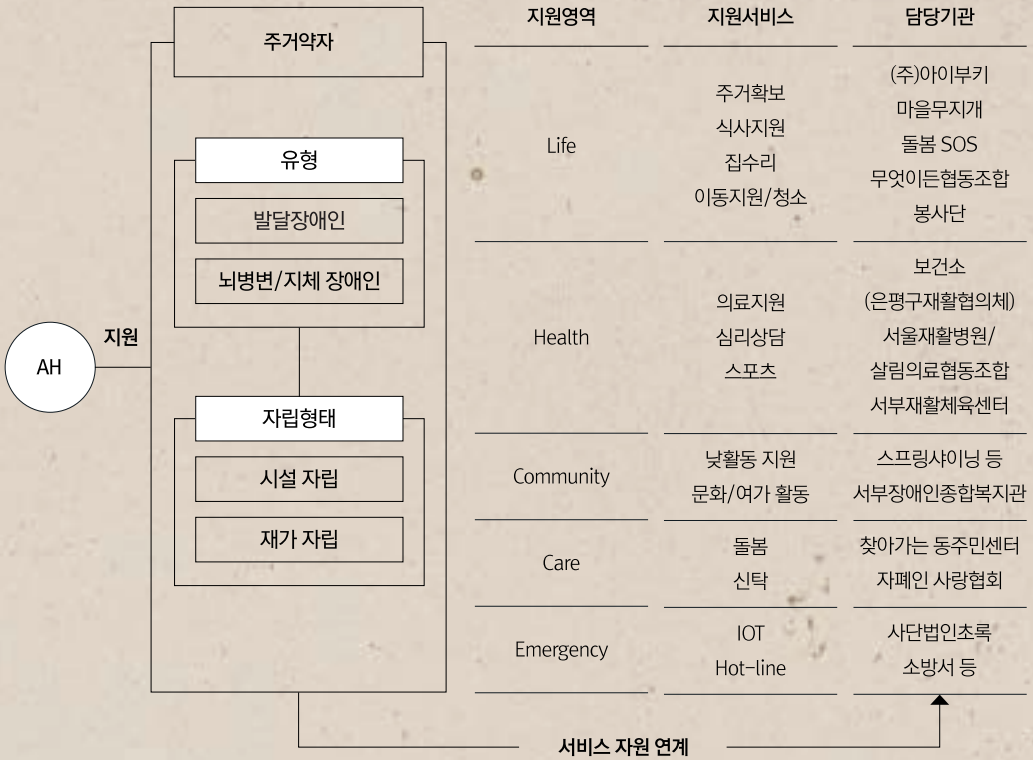
엔젤스헤이븐에서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모형을 고민하며, 2021년 엔젤스헤이븐 지원주거센터를 열고 38명의 장애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주거센터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그룹홈보다는 지역 내에서 '살고 싶은 주택'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욕구를 반영한 형태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에서 거

주, 의료, 일상생활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①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Housing) ②주거와 함께 공급되는 지지체계(Service) ③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Community)의 형성이라는 3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엔젤스헤이븐에서는 지원주거센터를 통해 '은평구 지원주거서비스 지역자원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원 영역을 크게 5가지(삶, 건강(의료), 커뮤니티 활동, 돌봄과 응급 상황)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맞는 서비스를 분류하고, 지역사회 내에 협동조합이나 기관,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원주택 지원서비스의 핵심가치는 '참여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살고 싶은 곳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와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람중심 지원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주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매니저, 주거코디네이터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내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거서비스 네트워크를 돌봄SOS사업 등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평가를 통해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은평구 지원주거서비스 지역자원 네트워크 모델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를 고민하며 엔젤스헤이븐은 새로운 지원주거 모델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대안을 지원주택(자가형, 매입임대형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서비스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특히 하나의 센터 기준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지

원주택(공급형/비공급형)사업에 네트워크 기반 자립지원 모델로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주택 공급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단독가구형,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형, 쉼터형 등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 유형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장애로 인한 차별과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건강 악화나 무력감 등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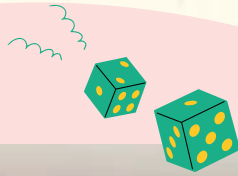
#### A씨의 은평살이

나는 시설에서 살다가 지역의 B부동산을 통해서 서비스 매니저와 함께 집을 구했다. 오랜 된 집이라 도배 등 수리가 필요해서 '무엇이든 협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 여러 병원들을 다녔는데 지원주거센터 통해서 '살림의원'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대한 의료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진료 횟수를 줄이고, 약을 잘 처방받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살면서 식사를 잘 챙겨서 먹기 힘들었는데 돌봄SOS를 통해 도시락을 지원받기도 하고, 동네 '행복한찬방' 반찬가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팀을 통해 평소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첫 월급을 탔다. 첫 월급으로 등산 동아리 조합원들을 위해 같이 산에 갈 때 음료수와 간식을 사서 갖고,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아랫집 아주머니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다.

#### B씨의 은평살이

B씨는 20대 후반의 남성 발달장애인으로 성인이 되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약자대상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자립 초기에는 과한 흡연과 불규칙한 생활로 탈모, 과도한 체중감량, 소화불량, 각혈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젤스헤이븐 지원주거센터에서는 우선 열악한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집청소를 돕고, 주거코치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얼마 전 휴대폰 사기를 당한 문제에 대해 센터에서 B씨와 함께 가해 기관을 고발하고 범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옹호 활동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안타깝게도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살림의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현재는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거코치의 주기적인 방문과 약물 복용, 당사자의 규칙적인 생활(코치 방문 전 스스로 청소하기, 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시간 지키기 등)을 하고, 흡연 대신 노래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되어 생활이 즐겁다고 합니다.

# 용산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따뜻한 시간





용산국제학교 학생 20여 명이 지난 1월 27일 엔젤스헤이븐과 다음장애아동지원센터를 찾아 장애아동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맞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용산국제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할 게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간식까지 준비해주었습니다. 다음장애아동지원센터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10명과 용산국제학교 학생들이 만나 웃음이 가득했던 시간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제학교 학생들이 장애아동을 만나기 전에 엔젤스헤이븐 법인 역사관에 모였습니다. 평소 장애인을 본 경험이 적고, 장애인과 만나 소통한 경험은 더욱더 적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태도와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자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는 신나고 자유롭게 뒹볼 수 있는 대영학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장애아동들과 2인 1조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자기 소개를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으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처음 만난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며, 또 공통점을 찾아가며 관계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색함 없이 긍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웃음과 좋은 에너지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해 온 작은 활동으로 젠가, 우노, 할리갈리 등의 보드게임을 하면서 봉사자 학생들과 장애 아동들이 게임 규칙을 알고 지키는 가운데 협력과 경쟁, 의사소통과 존중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

로 나와 리더십을 발휘해볼 수 있도록,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어 장애아동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준비한 게임이 끝난 후에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준비해 온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 등 여느 10대들과 다르지 않은 대화를 즐겼습니다.

봉사활동을 계획하면서 한국어가 서툰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학생들이 통역을 맡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아동 모두 언어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만 걱정과는 달리 서로의 웃음과 몸짓, 행동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활동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참여해준 용산국제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덕분에 다음장애아동지원센터 아이들에게 큰 웃음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용산국제학교  
봉사활동 참여자 인터뷰

**Q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심세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엔젤스헤이븐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에서 국제학교 친구들과 다움의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Q 봉사활동을 준비한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A** 이번에 엔젤스헤이븐에서 한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기로 했어요. 같이 봉사 간 친구들 모두 장애 어린이와 함께하는 이런 활동이 생소했기 때문에 준비할 때도 무엇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같이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만날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의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동생들의 평소 취향을 생각해보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Q 아이들과 만나 함께한 봉사의 소감을 나눠주세요.**

**A**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많이 떨렸어요. 그 날 저와 짝궁이 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잘 친해질 수 있을지,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간식과 활동을 좋아할 지도 걱정이 되었고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만나고 게임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의 흥과 에너지가 많아 저희도 걱정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재미있었던 만큼 아이들도 그 시간이 재미있었던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또, 만난 아이들과 친밀감이 쌓이고 쌓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싶어요. 용산국제학교 친구들은 장애 어린이들과 만났지만 다른 분들도 장애인과 만나 어우러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나고 이야기 나눠볼 일도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온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봉사하러 갔다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깨달은 것도 많아 이런 귀한 만남들을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애들아~ 또 만나자!



## 발달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동네밥집 오픈! 동네밥집에서 밥 먹고 가세요~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다다름하우스에 밥집이 열렸습니다.

다다름하우스에서 살아가는 장애청년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서부장애평합복지관 주거자립지원팀에서 준비한 동네밥집을 소개합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바로 밥입니다. 끼니를 챙겨먹기 위해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외출이나 소근육을 사용하는 요리가 어려운 장애인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또 집에 밥 먹는 사람이 한 명이라 남겨지는 음식들도 생각해야할 문제가 되고요.

자립을 하면서 이런저런 신경 쓸 것들이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하루쯤은 누군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으며 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매월 열리는 발달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동네밥집을 시작했습니다.

리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일찍부터 요리를 해주셨답니다. 하나 둘 퇴근하고 많이들 동네밥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알고 지내던 분들은 안부를 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도 한참 이야기를 나누느라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맛있게 식사 후 정리는 함께 했습니다. 동네밥집은 매월 1회 열릴 예정입니다. 3월도 맛있는 밥 기대해주세요.

동네밥집은 다다름하우스 지하 1층 공동주방과 커뮤니티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2월, 첫 시작으로 동네밥집이 준비한 메뉴는 제육볶음, 소고기 미역국, 콩나물 무침, 상추와 쌈장, 알타리 김치입니다. 사전에 대상자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며 많은 분들이 희망한 메뉴로 선택해보았습니다. 6시 동네밥집을 오픈하기 위해 조



# 포근한 봄엔 씨드볼을 던지자!

환경을 생각하는 ESG 씨드볼 만들기 봉사활동

‘봉사활동’이라 하면 보통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도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 비대면 봉사활동인데요. 엔젤스헤이븐답게 봉사키트 하나하나에도 어린이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식개선 내용을 넣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직접 봉사키트를 만들어 보낼 때, 받게 될 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멋진 봉사활동이지요?

## 환경오염의 심각성, 발달장애인도 배울 수 있을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수면 상승으로 인해 잠기는 땅과, 이상기후현상까지 나타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슈가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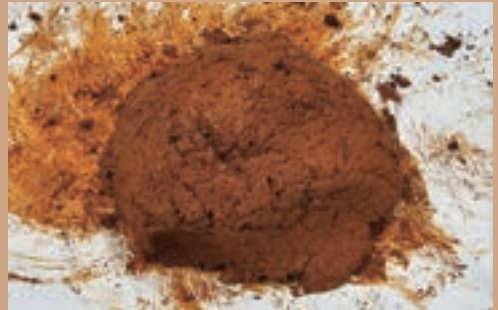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비장애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어릴 적부터 환경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장애 어린이들은 어떨까? 발달장애 아이들은 환경 오염이 심각해서 기후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꽃을 심고 가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안에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 ESG 씨드볼 만들기 봉사활동

실팔찌 만들기, 메모리 게임 카드 색칠하기, 펠트고구 만들기 등 여러 봉사키트를 연구하고 제작해온 엔젤스헤이븐은 ‘환경을 생각하는 봉사키트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봉사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고, 받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씨드볼을 생각하게 되었어

씨드볼의 장점은 씨앗 심기가 쉽고 싹을 틔우는 발아율이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내가 만든 이 씨드볼로 발달장애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싹 틔워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 뿌듯함은 두 배, 세 배입니다. 이렇게 엔젤스헤이븐의 봉사자들이 손수 만들어 보내주신 씨드볼은 발달장애시설에서 거주하시는 성인발달장애인과, 특수학교를 다니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화단을 가꾸는데 사용됩니다. 이번 봄, 지구를 살리는 ESG 봉사활동 씨드볼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요. 씨드볼은 흙, 황토를 섞고 그 안에 씨앗을 넣어 동그란 공 형태로 빚어서 만든 것입니다.



# 우간다 지붕 없는 유치원

“ 나카레마의 소원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





6살 나카레마는 매일 엄마가 일하는 동안  
3살 동생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갑니다.

나카레마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하나뿐인 유치원에는 75명의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큰 눈으로 선생님만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싶지만 비좁은 공간에 한 곳만 바라보게 됩니다. 벽 뚫린 창문, 구멍 뚫린 지붕은 강한 빛을 막아주거나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맞으며 공부하곤 합니다. 지난 겨울, 동생이 유치원에 갔다가 감기에 걸려서 한동안 동생 간호를 맡아 고생한 나카레마. 그래서 나카레마의 소원은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는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나카레마가 다니는 유치원은 엔젤스헤이븐이 문해교육과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루곤고라는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이곳은 성인 60% 이상이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고 하루 평균 수입은 약 700원 정도로 매우 가난한 지역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방치돼 있었던 유치원. 이런 아이들을 보고 모른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선물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작년 5월, 우간다 하루곤고 지역에 유치원 재건축을 위한 해피빈 모금함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카레마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셔서 총 4,572,000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5개월 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안전하고 쾌적한 유치원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땀 뚫려 비와 소음, 보안에 취약한 교실에서 지붕과 창문이 있는 안전한 교실로. 흙먼지가 가득한 땅 바닥에서 먼지가 일지 않는 위생적인 바닥으로. 41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8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소식**

**우간다 농민, 힘찬 자립 날개짓!**

우간다 카바루레 지역 농민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3년의 여정 중 마지막 1년을 맞이합니다. 총 3개 조합의 약 3,000명 조합원 소득 증진을 위해 종자와 염소를 지원했고, 1차년도에 지어진 염소농장 또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 협력, 기여의 3C 원칙을 통해 지역 농민들은 계속해서 완전한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농민들이 앞으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소속기관소식**

**은평천사원**

**Ah`Youth 해외활동단 “나(는)짱”**

Ah`Youth 해외활동단 ‘나(는)짱’ 프로그램이 아동 9명과 독립생 1명 그리고 직원 5명을 포함, 총 15명이 2024년 1월 22일(월)~1월 26일(금)까지 베트남 나트랑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나(는)짱 활동은 중학생~대학생 아동들로 구성되어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욕구에 기반한 활동으로, 아이들이 그룹을 만들어 스스로 활동 내용을 조사하고 계획하며 여행 세부 일정과 예산들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기본지식 습득과 경험, 미션을 수행하며 변수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이 앞

로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할 때 좋은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h`늘함께지역아동복지센터**

**체력도 쑥쑥 자신감도 쑥쑥**



새로운 2024년을 맞아 센터에서는 1월 18일 스몐과 챔피언x1250을 다녀왔습니다. 시설 안에 있는 어트랙션도 이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배워가고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새롭고 낯선 어트랙션 및 체육활동을 도전하고 멋지게 성공하면서 자신감도 쑥쑥 체력도 쑥쑥 키워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평재활원**

**국제 아트페어 아크릴 그림 전시회**

은평재활원의 반 고흐 안ㅇ필씨는 서부 재활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유화아크릴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많은 작품활동을 했습니다. 화가라는 꿈을 국제 아트페어 아크릴 그림 전시회를 통해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작가 부스 중 한 부스에 자신의 그림이 전시된 것에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미소로 뿌듯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ㅇ필씨의 멋진 작품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더 성장하는 작가가 되도록 지켜봐 주세요.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겨울여행과 다양한 외부활동**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여행과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가평과 포천으로 여행을 떠나 키즈펜션의 실내수영장,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이도 하고, 전시회와 딸기농장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롯데월드와 영화관, 눈썰매장, 레이싱 키즈월드, 스케이트장, 테마파크, 뮤지컬관람 등 희망하는 활동을 정해서 다녀올 수 있어서 더욱 알차고 행복했던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은평자립준비청년청**

**은평자립준비청년청 음식모임**

2024년 설을 맞이하여 자립준비청년 25명과 은평구청장, 엔젤스헤이븐 대표 등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설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모여 게임도 하고, 떡국, 전, 식혜 등 맛있는 설음식과 함께 새해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명절은 시설에서 독립 후 혼자 지내던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올해는 함께해서 즐거운 설 명절이었습니다.

**은평대영학교**

**새로운 시작, 입학 축하합니다**



은평대영학교는 3월 4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학식에는 유치, 초등, 중학, 고등, 전공과의 총 80명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and 신입생의 선서, 교장선생님의 환영사, 대표이사님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경아 교장은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하며 “모두가 학교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잘 적응하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의 사랑의 말을 강조하며 서로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자가족자활센터 한돌회**

**입소인 월별 상담 및 아동방학상담 진행**



한돌회에서는 매월 입소인들의 자립, 교육, 가족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격려로 아동들이 직접 심부름 쿠폰을 만들고 소중한 가족을 위한 애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방학 쉼쉴 날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전달되어 포근해진 한돌회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굿잡 인은평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좋은 일자리를 연계해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화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 내 직무를 개발하여 취업을 연계합니다. 은평구 여러 곳에서 병원업무보조, 사서보조, 매장관리, 카페업무, 사무보조, 장애예술직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함께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겨우리주간보호센터**

**내멋대로 활동 ‘날 위한 날’**

정겨우리는 ‘한 명’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2월에는 철수님을 위한 ‘날 위한 날’을 마련하여 수영장과 롤러장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릴 적에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과 함께 다녀온 철수님은 수영과 롤러스케이트를 통해 액티비티 재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겨우리는 이용인들의 꿈과 가능성을 열심히 탐색하고 취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누야하우스**

**마음과 몸이 편해지는 릴렉스 프로그램**



올해도 어김없이 성원에 힘입어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릴렉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릴렉스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이용자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 시

작은 손ખ아 기다려 주셨습니다. 월요일은 미술, 목요일에는 체육으로 각자 소그룹으로 프로그램 주기를 나누어 이용자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자신의 끼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아하우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여유를 즐기고,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재활병원**

**서울재활병원 뇌병변장애청소년 캠프  
“나를 찾아가는 사람”**

지난 12월,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의 청소년 캠프는 곧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장애 청소년들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여행 기획부터 일정까지 모두 아이들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게 됩니다. 집을 나서는 모든 순간이 도전이 되는 장애 청소년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꿈을 찾아가길 수 있도록 서울재활병원은 청소년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서부재활체육센터**

**2기 건강아카데미 개강**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2기 건강아카데미 프로그램(탁구, 수영, 레이저사격, 미술)이 80여 명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정 소개와 취업 알선 단체인 전국장애인체육회, 브이드림, 에듀컨설팅(레이저사격) 관계자들도 함께 하여 장애인들을 위해 선수등록, 취업연계 및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회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은평보호작업장**

**사진여행 프로그램 앨범제작**



2023년 은평보호작업장 이용인분들과 진행한 사진여행 프로그램의 과정이 담긴 앨범이 제작되었습니다. 광명동굴, 롯데월드, 은평한옥마을, 서오릉, 일산

호수공원, 시흥 갯골생태공원, 월드컵공원, 청와대, 광화문 등 다양한 지역명소를 방문하고 각자가 바라보는 풍경과 동료들을 사진에 담은 사진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달리는 거북이”**



2023년 한 해 동안 느린학습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달리는 거북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느린학습자 개인치료 및 가족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총 13가정이 열심히 함께 달려와 주었습니다. 느린학습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낯설었던 부모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진짜 부모로 돌아가 건강한 양육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 공동체를 만들어 외롭지 않게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센터**

**2024년 자치기구 위촉식 및  
동아리 연합 발대식**

3월 9일 토요일 센터 내 전체 자치기구

및 동아리들이 연합해 위촉식 및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립은평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기구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제21기 'The Wings', 대학생기획단 3기 '조.은.대', 동아리연합회 '열음' 등 자치기구 3개, 제과제빵동아리 '빵타스틱', 바리스타동아리 '카페CEO', 웹툰동아리 '카툰즈', 포토미디어동아리 '뉴파인더', 봉사동아리 '드림하이' 학교 신규동아리 5개 등 총 10개의 동아리, 101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전체 자치기구 및 동아리는 올해 12월까지 월별 정기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갈현노인복지관**

**정원대보름 맞이  
갈현 장기대회 및 윗놀이대회**



2월 21일, 22일 양일간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정월대보름 맞이 장기대회 및 윗놀이대회를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정서지원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장기와 윗놀이 경정을 통해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갈현청소년센터 심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평가로서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2년마다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기준 및 안전', '대외협력 및 홍보', '종합평가' 7개 분야와 7개 안전 점검 분야 등 총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는 전국 500여개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갈현청소년센터는 14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상위 20개 기관에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진관우리동네키움센터**

**다들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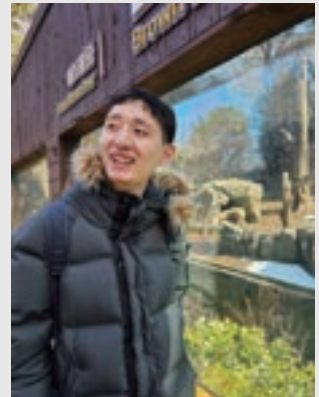
2024년은 새롭게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선생님과 일대일로 돌만의

나들이를 나갑니다. 만화카페에서 간식을 먹으며 보내는 여유로운, 말랑말랑 귀여운 인형을 품에 안을 때의 행복함, 빙글빙글 회전목마의 즐거움, 좋아하는 햄버거와 마카롱의 달콤함, 카페에서 교사와의 오붓한 수다로 아름다움 추억을 쌓습니다.



**은평장애인주간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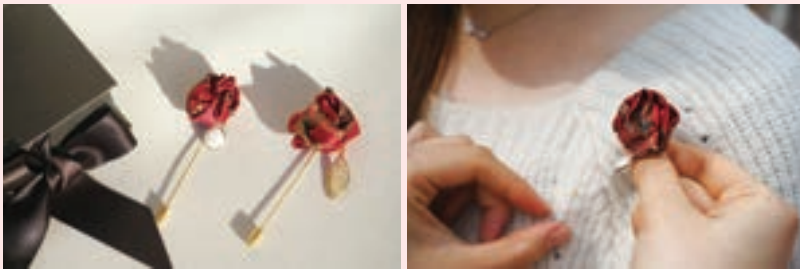
**직원과 이용자가 함께 하는 여행**



2024년부터 매 월 한번, 직원과 이용자가 일대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 이용자분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앞으로도 매 월 이용자분들과 더욱 가깝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Family day

# 이번 가정의달 카네이션은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부토니에 어떠세요?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카네이션  
한복원단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부토니에

편당으로 모인 수익금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에 사용됩니다.

네이버 해피빈에서  
“엔젤스헤이븐”을 검색해주세요!

엔젤스헤이븐



 엔젤스헤이븐  
ANGELS' HAVEN